

女心 저격 순정男… 그대들 있어 행복했네

마지막회 ‘...오작두’ 11.7% ‘밥 잘...’ 6.8% 기록

김강우·정해인 풋풋·듬직한 매력으로 시청률 견인



정해인

여심을 뒤흔든 두 남자, 오작두와 서준희가 나란히 시청자들과 작별인사를 했다.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속 깊은 오작두를 연기한 김강우와, 예뻐면서도 듬직한 연하남의 정석을 보여준 정해인은 MBC TV 주말극 ‘데릴남편 오작두’와 JTBC 금토극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인기를 견인한 일등공신으로 남았다.

◇ 김강우의 파격 변신...청춘 순수 성장극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5분부터 2회 연속 방송한 ‘데릴남편 오작두’ 시청률은 7.7%, 11.7%를 기록했다.

최종회에서는 오작두(김강우 분)와 한승주(유이)가 진실된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하는 모습이 담겼다.

‘데릴남편 오작두’는 ‘김강우의 드라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강우의 매력이 빛난 작품이었다.

데뷔 17년 차의 김강우는 그동안 주로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캐릭터를 연기해왔다. 그가 출연한 작품 역시 액션이나 스릴러 등 장르극이 다수였다.

그러나 김강우는 이번에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투박하지만 순정을 간직한 사골 남자 오작두로 변신해 여심을 사로잡았다. 구수해진 외모와 사투리도 특유의 매력을 더했고, 유이를 리드하며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극 자체도 조금씩 어설픈 구석을 갖고 있던 캐릭터들이 서로를 만나며 성장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그려냈다. 다른 다수의 주말극과 달리 자극적인 연출 없이 풋풋함만으로도 시청자를 사로잡았다는 평이다.

‘데릴남편 오작두’ 후속으로는 채시라, 이성재 주연의 ‘이별이 떠났다’가 방송된다.

◇ 연하남 열풍...현실적인 전개 호불호 갈려

전날 오후 11시 방송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마지막회 시청률은 6.787%(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최종회에서는 윤진아(손예진)와 서준희(정해인)가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모습이 담겼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정해인이다. 지난해 ‘당신이 잠든 사이에’로 눈도장을 찍고 ‘슬기로운 감빵생활’로 뜬 그는 이번 작품으로 그야말로 ‘대세’가 돼 광고를 휩쓸고 있다.

데뷔 6년 차 중고신인 정해인은 극 중 연하남 설정과 실제 동안을 무기로 귀여움을 부각하고, 동시에 가법치 않은 듬직함까지 보여주면서 서준희를 압제적으로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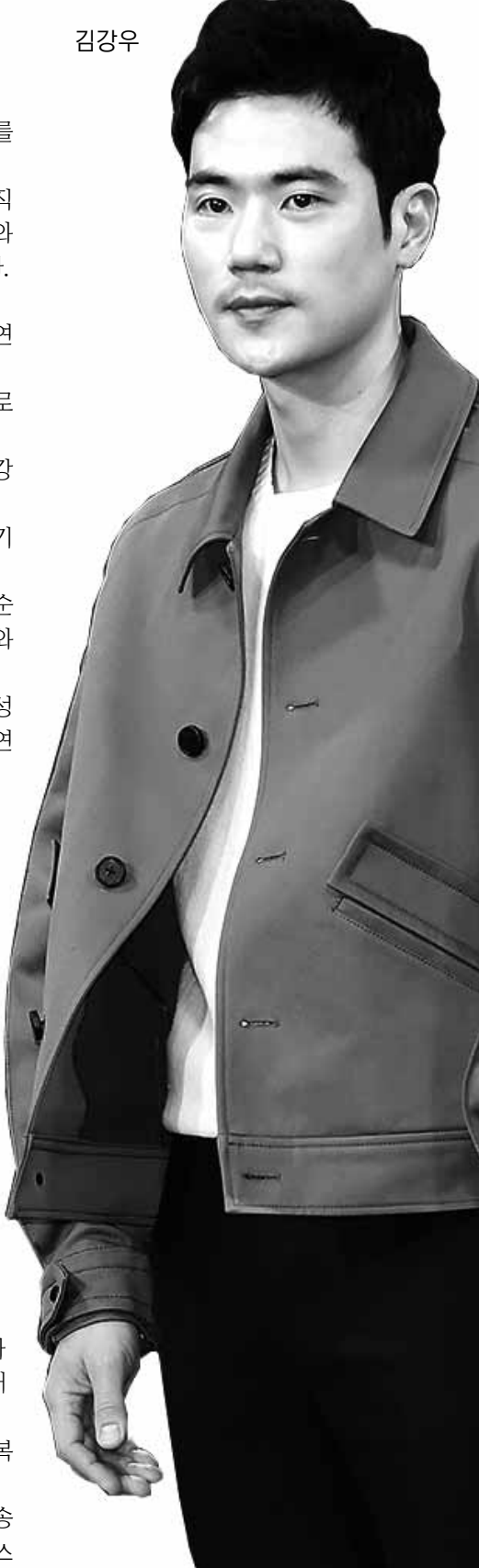
단순 멜로에 그치지 않고 윤진아를 통해 보여준 현실적인 ‘뽕’들은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극 부분에서 시청자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기도 했다.

어머니 내려온 결혼과 세대로부터 성에 대한 고리타분한 인습들 앞에서 다른 드라마 여주인공들처럼 어퍼컷을 날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윤진아의 태도는 공감을 사면서도 동시에 극의 뒷심을 빼버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왕 로맨스에 현실적인 얘기를 얹으려 했다면, 각종 장애물의 등장과 극복 과정을 좀 더 신선하게 그렸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후속으로는 정지훈, 이종근 주연의 ‘스캐치’가 방송된다.

/연합뉴스



김강우

빈민구제·의료활동 앞장

골롬반선교회 100년 조명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창설 100주년과 한국 진출 85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다큐 인터뷰 장면.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개국 22돌 내달 1일 ‘위대한 여정’ 방영

cpbc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창설 100주년, 한국 진출 85주년’과 개국 22주년을 맞아 6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 ‘위대한 여정’(기획 김선균, 제작 양복순·조미영·권수민)을 전국 방송한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는 1부 ‘사랑, 그 불멸의 기억’에서 골롬반회 사제들이 지난 1933년 낯선 한국에 오게 된 배경과 함께 전라도에 진출해 목포성골롬반병원과 나주 혜성학교, 현애원, 광주엘마우스복지관, 제주성이시돌목장 등을 운영하며 복음 전파와 함께 빈민구제, 교육, 사회복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과 동고동락했던 사제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담아냈다.

또 2부 ‘영원한 여행, 영원한 꿈’에서는 625한국전쟁과 제주 4·3항쟁, 천주교 원주교구장이었던故(고)지학순 주교 구속사건을 비롯해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했던 골롬반회 사제들의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조명했다.

이번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배우 권해효씨가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연출진은 지난해 10월 다큐멘터리 기획을 시작해 7개월에 걸쳐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제주와 강원도 춘천, 화천 등에서 사목하고 있는 골롬반회 사제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한편 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지난 1918년 에드워드 갈빈 주교와 블로워 신부 에 의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창설됐으며 현재 한국과 필리핀, 칠레, 페루 등 15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933년 10월 29일 10명의 선교사가 전라도에 첫 발을 내디딘 뒤 광주와 제주지역 교회의 초석을 다졌고 춘천과 원주교구의 설립과 선교에도 기여했으며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인천, 수원, 안동, 부산교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관계자는 “종교를 떠나 85년전 한국에 진출해 의료활동과 빈민구제, 사회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했던 골롬반회 사제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다큐를 제작했다”며 “특별히 올해 ‘전라도 창도 1천년’을 맞아 골롬반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웬수들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가정의 달 기획 1박 2일 〈김준호행운조작단 1~2부〉	30 930 MBC 뉴스 45 목민가왕 1~2부 스페셜	10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풍속법요식			10 시크릿 마더(재)
11	00 부처님 오신날 기획 다큐 공감 〈둘러나 산문에 들다〉(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40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념 범시도민 대축제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40 우리가 만난 기적 (재)	35 이리와 안아줘(재)	00 SBS 뉴스 20 불타는 청춘 1~2부(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코스 가요1번지 5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0 2018 프로야구 〈두산 : 한화〉	45 MBC 뉴스 55 MBC스포츠포트 2018 KBO 리그 〈NC : LG〉	50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집사부일체 스페셜 1~2부
2	50 생로병사의 비밀(재)			
3	45 부처님 오신날 특선다큐 천년의 풍경 천년의 위로 마곡사			
4	35 UHD 송터 40 2018 지방선거 정강정책연설 〈자유한국당〉			10 SBS 뉴스 20 기름진 멜로(재)
5	00 KBS 뉴스 10 KBS광주 연중기획 남도 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30 제보자들(재)	35 나 혼자 산다 1~2부 스페셜	30 올댓 스케이트 2018 김연아 아이스쇼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30 2TV 생생정보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정명 천년 특집다큐 〈전라도 년〉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애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부처님 오신날 UHD 특집 〈원효, 돌아보다〉 55 UHD 송터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검법남녀	00 기름진 멜로
11	2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북한문화유산 4부작	10 하룻밤만 재워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독립영화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40 장수의 비밀(재)
〈아시아동물기행	10:30 한국기행(재)
생존의 바다 인도네시아 섬아자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6:00 한국기행(재)	〈DMZ 산나물비빔밥〉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년대 파이어로보	12:00 EBS 정오뉴스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행복한 교육세상
07:45 출동! 슈퍼왕스2	13:00 다큐 오늘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8:30 허준선생과 과학소(재)	〈목숨을 건 여행자, 녹색비둘기〉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뽕치미(재)
09:00 몬카트	14:30 강철소년대 파이어로보(재)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15 파프리카	19:50 극한직업 스페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0:40 세계테마기행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그 섬에 가면 인도네시아 2부
16: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뜨거운 것이 좋아〉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1: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우리 같이 살까? 2부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볼 날의 스님과 세프들〉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1:50 EBS 다큐프라임
17:30 마사와 꿈	〈맛의 배신 2부
17:45 띠띠뽀 띠띠뽀	중독을 부르는 향〉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9:00 몬카트	23:55 뽕치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4:45 지식제네e
19:30 EBS뉴스	24:50 한국영화특선 〈전우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2일(음 4월 8일 甲寅)

 子	36년생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 48년생 뒤바뀔 수 있는 여자가 총분리 있다. 60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향하라. 72년생 난해하다면 원정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자. 84년생 평생 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44, 61	 午	42년생 지나치면 아니 될 것이다. 54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니라. 66년생 원칙적이려면 만사가 뜻과 같이 펼쳐지리라. 78년생 새 모습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90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7, 27
 丑	37년생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니라. 49년생 표리가 부당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61년생 수고로움이 보인다. 73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85년생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니 눈여겨보아라. 행운의 숫자 : 75, 76	 未	43년생 과감하게 청산함이 유익하다. 55년생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데 전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67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합리하다. 79년생 확실해 유지하고 있어야만 활용하게 된다. 91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 행운의 숫자 : 52, 88
 寅	38년생 다투면 손해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50년생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로다. 62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자. 74년생 중복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86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0, 63	 申	44년생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56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68년생 문젯거리로 비화 될 수 있다. 80년생 지체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속히 조치하라. 92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48
 卯	39년생 빠른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1년생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 63년생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75년생 원래부터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87년생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58	 酉	45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짐에 비유할 만하다. 57년생 틈 없는 계획 수립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69년생 식견이 풍부한 이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옳다. 81년생 격에 맞아야만 쓸모 있게 되리라. 93년생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0, 93
 辰	40년생 귀를 막고 지내야만 마음이 편한 해지리라. 52년생 변화의 폭이 크다. 64년생 근본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76년생 중요한 일이 눈의 될 것이니 놓치지 말자. 88년생 바라던 일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행운의 숫자 : 35, 79	 戌	34년생 풍년에 광 속의 쥐 적이다. 46년생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58년생 전면적으로 조처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도다. 70년생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목표를 달성한다. 82년생 경제국면으로 접어드는 기세가 역력하다. 행운의 숫자 : 21, 39
 巳	41년생 숙의하는 과정에서 강한 결론에 이르리라. 53년생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65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될 수도 있느니라. 77년생 영귀함이 따르는 행운이 있다. 89년생 이를 데 없이 귀하지만 지만한다면 잃는다. 행운의 숫자 : 92, 77	 亥	35년생 끝맺음만큼은 알찰 것이다. 47년생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이익이다. 59년생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틀림없겠다. 71년생 일부러 나서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83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시의 적절하게 쓰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5, 5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